

태양처럼 그저 자기를 불태우라①

-시소보박, 흰바탕을 보고 생명을 얻은 자

| 심중식 한국산업기술대 겸임교수 |

이 글은 김흥호 선생으로부터 빛을 얻고 자신의 빛을 뿌리기 시작한 심중식 선생의 노자 강의입니다. 세 번에 걸쳐 1) 시소보박, 흰바탕을 보고 생명을 얻은 자, 2) 견소로박, 자기 자신을 보고 영원을 얻은 자, 3) 위무위사무사, 말로 전할 수 없는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연재될 이 글을 통해 스스로를 불태워 태양이 된 이의 에너지를 맞보십시오(편집자 주).

현실세계

노자와 공자가 살던 중국의 춘추시대는 주(周)의 봉건제도와 질서가 무너져 사회적 격변과 혼란이 시작되던 때였다. 해마다 전쟁과 난리가 그치지 않던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금 평화로운 세계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평화로운 세계 질서의 토대를 공자는 인(仁)과 예(禮)라고 말하고 노자는 도(道)와 덕(德)이라는 말로 했지만 그 지향하는 뜻은 하나였던 것이다.

사람됨의 기초요, 인생의 근원이요, 세상 원리의 토대요, 존재 생성의 근간을 아우르는 그 무엇인가의 도(道), 그것과 일치하는 것을 예(禮)라고 하였다. 그래서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다. 아침에 도(道)를 깨닫고 낮에 예(禮)를 회복하면 저녁에는 언제라도 기쁘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자의 제자 안연(顏淵)이 사람답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 공자는 “극기복례 천하귀인(克己復禮 天下歸仁)”이라고 대답하였다. 자기를 극복하고, 즉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도를 깨달아 예(禮)를 회복하면 천하의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극기복례란 거짓된 욕망의 자신을 벗어나 본래적인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천하 만물이 모두 한 몸이요 서로 돕는 사랑의 유기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인(仁)이다. 인이 되면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존재,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가 인(仁)이다.

노자는 이것을 무위자연(無爲自然)이라 한다. 극기복례가 무위(無爲)요, 천하귀인을 자연(自然), 저절로 그러함이라 말한다. 천지 만물이 모두 한 몸이요 사랑의 존재라는 것은 본래가 저절로 그러한 것이지 억지로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세상은 왜 이렇게 전쟁과 착취와 거짓으로 분열되어 증오와 살육의 고통이 가득하게 되었을까. 전쟁의 참화에서 세상을 구원할 방법은 무엇이며 누가 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노자는 다음과 같이 세상을 진단한다.

絕知棄辯，民利百倍。絕巧棄利，盜賊亡有。絕僞棄慮，民復季子。
三言以爲辨不足，或令之或乎屬。視素保樸，少私寡欲。

(통용본 19장)

(분별지를 끊고 말재주를 버리면 백성들의 행복은 백배나 늘어날 것이요, 교묘한 술수를 끊고 탐욕을 버리면 도적이 사라질 것이요,

위선과 거짓을 버리고 염려와 간섭을 그만 두면 백성들이 모두 어린이로 돌아갈 것이다. 이 세 마디로써 세상을 판별함은 족한 일이 못된다.

언제나 영을 세워 실천토록 하고 언제나 속민들을 모아 가르쳐야 한다. 바탕을 보고 본디의 모습을 보전하라. 자기를 없애고 욕심을 덜어내라.)

먼저 이 초간본을 보면 맨 처음에 절지기변(絶知棄辯)이라 했는데 통용본 19장을 보면 절성기지(絶聖棄智)로 되어있다. 그리고 절위기려(絶僞棄慮)는 절인기의(絶仁棄義)로 바뀌어있다. 초간본의 표현이 통용본에 와서 유가적 개념인 성인(聖人)과 인의(仁義)를 반대하는 듯한 표현으로 뒤바뀐 것이다. 이를 볼 때 후대로 내려오면서 시대 상황에 따라 노자의 말이 달라진 표현으로 편집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문제는 학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노자의 뜻을 찾아보기로 한다.

노자가 볼 때 세상이 이처럼 질서가 무 지고 전쟁의 참화가 나오게 된 이유를 인간의 분별지에서 찾은 것이라 생각한다. 지(知)라는 글자는 화살(矢)과 방패(口)의 형상을 모아놓은 글자다. 전쟁의 무기를 왜 지혜롭다는 지로 표시했을까. 짐승을 잡는 화살을 만든 것도 인간의 지혜요 전쟁에서 화살을 막는 방패를 만든 것도 인간의 지혜다. 청동기를 만든 것도 인간의 지혜요, 철기를 만든 것도 인간의 지혜다.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아 석기시대는 청동기시대로 발전되고 청동기는 철기시대로 전환되었다. 인간의 지혜로 철기를 만들면서부터 생산력도 급격히 증대되었지만 또한 각종 무기들도 발명되어 그만큼 전쟁의 참화도 커지게 되었다. 노자와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는 청동기에서 철기문화가 보

편화되는 문명의 전환기였는데 앞선 철기문명을 지닌 자가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정복전쟁을 수행하여 더 넓은 지배력을 피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라는 도구적 지식 능력을 가지고 더욱 잔인한 무기를 만들어 보다 큰 지배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인간의 허황된 욕망과 나와 상대를 갈라놓고 상대를 원수로 보고 죽이는 분별지를 지(智), 변(辯)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전쟁의 참화보다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분별지와 살상을 그친다면 백성들의 행복이 얼마나 커지겠는가.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 교묘한 온갖 착취를 그만 둔다면 굶주려 도적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또 위정자들이 위선과 거짓을 버린다면 교활하고 간교한 백성이 어디 나오겠는가. 민부계자(民復季子), 백성들이 모두 순진한 어린이가 될 것이다. 계자(季子)란 어린이를 말한다. 거짓 없는 순진함의 상징이 어린이이다. 백성들이 모두 순진한 어린이가 되는 사회가 이상사회다.

간단히 말해서 백성이 바라는 세상은 전쟁과 억압이 없고 착취와 굶주림이 없고 거짓과 간섭이 없는 세상이다.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보편적인 인간의 바람이다. 이 시대 우리사회도 위정자들의 분열과 다툼이 없다면 백성들의 이로움은 백배나 될 것이다. 남북의 분열과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또 고위공직자와 재벌들 그리고 사회지도층의 교묘한 이득 취하기가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가. 어찌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물건을 훔치는 줍도둑보다 합법을 가장한 사기꾼들이 더 큰 도적들이 아닌가. 또 지도층들의 위선과 간섭이 온갖 규제로 나타나면 백성들은 숨쉬고 살기가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나라와 백성을 위한답시고 시시콜콜 온갖 규제를 만들어 백성들을 간섭하면 백성들은 그만큼 비뚤어져 본래의

순박함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정치는 분열과 다툼이 없는 화합과 평화의 세상을 열어야 하고, 경제는 착취와 도적이 없는 정직한 세상을 열어야 하고, 사회는 위선과 거짓 없이 서로 돕는 진실의 세상이 되어야 한다. 폭력을 버리고 화합하자, 착취할 생각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자,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자, 이 세 마디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세상에 폭력과 착취와 거짓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삼언이 위변부족(三言以爲辨不足)’, 이 세 마디로 세상을 판별함은 족한 것이 못 된다. 세 마디 말을 알기만 해서는 부족한 것이고 누구나 힘써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혹영지혹평속(或令之或乎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영을 세워 나라의 백성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영(令)이란 오늘날의 헌법, 행정법, 민법을 포함하는 법을 말한다. 분열 없이 통일된 나라, 착취함도 없고 착취당함도 없는 독립된 나라, 온 백성이 어린이처럼 맘껏 활동하는 자유의 나라, 그런 나라를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모두가 그에 따라 높은 문화를 발전시켜야 된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영을 내리고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이끌었던 것처럼 나라의 영을 세우고 창조적인 새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누가 할 것인가. 혹(或)이란 그 글자를 찾아보면 ‘언제나’ ‘항상’ ‘때로는’ ‘누군가’, 이처럼 다양한 뜻이 있다. 혹영지(或令之), 누군가 그런 지도자가 나와서, 통일과 독립과 자유의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헌법을 선포하고 모두가 거기에 따를 수 있도록 해

시소(視素), 바탕을 본다는 말은 진리를 깨닫는다는 말이고, 보박(保樸), 질박함을 보전한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다.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얻은 자, 그것이 시소보박(視素保樸)이다.

야 한다. 혹(或)이란 글자는 나라 국(國)에서 국경의 테두리를 없앤 것이다. 그래서 국경 없는 나라, 인류의 지도자가 혹(或)이라 생각해 본다. 혹자,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인가. 철학이 높아져서 통일을 이루고 도덕이 높아져서 독립을 이루고 종교가 높아져서 자유를 이루는 그런 나라로 이끌어갈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라야 하는가. 과학의 분별지를 극복하는 것이 철학의 통일지요, 부정부패를 극복하는 것이 도덕의 힘이고, 거짓과 망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종교의 사명이다. 노자는 이 세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세상이 바로 된다는 것이다. 그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소보박(視素保樸), 소사과욕(少私寡欲). 이것이 지도자의 조건이다. 시소보박(視素保樸), 흰 바탕을 보고 순박함을 간직한 자, 소사과욕(少私寡欲), 사사로움이 없고 욕심이 없는 자, 그런 자가 진정으로 나라를 이끌고 인류를 이끄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위대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시소보박(視素保樸)하여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야 인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소(視素), 바탕을 본다는 말은 진리를 깨닫는다는 말이고, 보박(保樸), 질박함을 보전한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다.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얻은 자, 그것이 시소보박(視素保樸)이다. 소는 흰 바탕으로 빛이란 말이고, 박(樸)은 본디대로 생긴 통째의 나무다. 박이란 톱으로 잘라놓은 죽은 통나무가 아니라 통째의 살아 숨쉬는 푸르른 생명의 나무가 박(樸)이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여호와와 빛을 보고 생명나무가 되었

다. 예수는 헬몬산에서 눈보다 흰 빛에 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세주가 되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그리스도의 종 복(僕)이 되었다. 본래의 생명나무가 박(樸)이요, 그런 나무처럼 일체 욕심이 사라지고 오직 빛을 쫓는 종의 모습이 또한 복(僕)이다. 그래서 박(樸)이나 복(僕)이나 결국 같은 뜻이 된다. 인류의 종복이 된 사람, 그가 생명나무요, 박(樸)이다. 온 세상의 지도자요, 인류의 구세주가 박이요, 인류의 죄 짐을 지고 희생양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 복이다. 그래서 복이 십자가라면 박은 부활의 모습이다. 그런 사람에게 사욕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사람들이 그이를 믿고 자기를 없이하여 욕심을 줄여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전했다는 한마디도 그것이다. ‘인심유위 도심유미 유정유미 윤집궐중(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세상의 욕심은 너무도 위태롭고 진리의 빛을 찾는 마음은 너무도 희미하다. 그대는 오로지 맑고 밝은 빛을 찾고 오로지 정직한 생명나무가 되어 진실로 세상을 바로잡는 그 핵심을 놓치지 말라.

흰 빛에 싸인 생명나무 같은 지도자, 인류의 종이 되어 자신을 십자가에 바치는 그리스도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빛을 비출 때라야만 세상에 가득한 사사로움과 욕망의 어두운 먹구름을 걷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이라 하는데 유교에서는 중용(中庸)이라 한다. 앞으로 세상의 분열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통일과 화합의 새 시대를 열어갈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 남북이 갈라지고 좌우 동서로 찢겨서 서로간의 불신과 증오의 악취가 진동하는 이 땅에서 과연 흰 빛에 싸인 순박한 나무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 밝은 하늘과 맑

은 땅에 푸른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때는 언제나 될까.

흰 빛을 보고 빛처럼 깨끗해진 씻어낸 이의 모습을 노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노자는 시소보박(視素保樸)이라 했는데 먼저 시소(視素), 바탕을 본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읽어본다.

천지보다 앞선 근원적 바탕; 도(道)


有狀混成，先天地生，肅穆，獨立不改，可以爲天下母 未知其名，字之曰道，吾強爲之命名曰大。大曰遠，遠曰返。天大，地大，道大，王亦大。國中有四大安，王居一安。人法地，地法天，天法道，道法自然。
(통용본 25장)

(혼연 생성의 모습이 있었으니 천지가 생겨나기 전이었다. 엄정하고 온화하고 공경스럽고, 홀로 온전하여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으니 능히 천하의 어머니라 할 수 있다. 그 이름을 알 수 없으나 도라는 글자로 표시해 본다. 내 역지로 이름 하여 크다고 해본다. 큰 것은 멀리 갈 수 있고, 멀리 가는 것은 다시 돌아오게 된다.

하늘도 큰 것이요, 땅도 큰 것이요, 도도 큰 것이요, 왕도 또한 큰 것이다. 나라에 네 가지 큰 기쁨이 있으니 왕도 정치가 하나의 기쁨이다.

사람은 땅을 좇아 더불어 살며, 땅은 하늘을 좇아 더불어 변화하고, 하늘은 도를 좇아 더불어 움직인다. 도와 더불어 좇는 것은 저절로 그러한 것이다.)

시소보박에 대한 풀이를 노자의 말로 대신해본 것이다. 흰 바탕을 본다는 말은 천지만물이 나오기 이전의 형이상(形而上)의 세계를 이처럼 상징을 통해 보는 것이다. 무엇이랴 말할 수 없는 도(道)는 거기에서 하늘도 나오고 땅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는 어머니 사랑 같은 그 무엇이다. 그래서 하늘도 도를 좇아 기쁘게 움직이고, 땅도 도와 더불어 기쁘게 변화하고 사람도 도와 더불어 기쁘게 살아간다. 하늘의 도와 땅의 도와 사람의 도에 두루 통한 철인이 왕(王)이다. 왕이라는 글자가 그것을 나타낸다. 하늘의 빛과 땅의 힘과 만물의 사랑을 지닌 기쁨의 존재가 철인이다. 그러니까 철인 왕이라야 왕이지 철인이 못되면 왕도 못된다. 철인과 왕의 일치 즉 철인정치가 왕도정치요, 이런 왕도 정치가 되어야 온 나라가 기쁨으로 넘치게 된다. 나라의 목적이 이것이다. 하늘을 살리고 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하늘을 살리는 것이 하늘의 도요 땅을 살리는 것이 땅의 도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람의 도다. 철인은 이런 천도 지도 인도에 통하여 천지만물을 살리고 살리는 왕이다. 그래서 나라의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은 철인왕이 나타나는 것이다. 철인왕이 나타나서 도를 가지고 하늘과 땅과 사람을 살리는 기쁨이다. 그것이 국중유사대안(國中有四大安), 왕거일안(王居一安)이라는 말이다. 하늘의 도를 가지고 문화를 빛내는 기쁨, 땅의 도를 가지고 경제를 빛내는 기쁨, 사람의 도를 가지고 사회를 빛내는 기쁨, 그런 기쁨을 일으키는 왕도정치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다. 공자나 노자나 모두 왕도정치를 꿈꾸던 사람이다. 철인왕이 나와야 하늘도 새 하늘이 되고 땅도 새 땅이 되고 문화도 새 문화가 된다. 하늘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는 사랑의 왕이라야 철인 왕이다. 그렇게 모든 것을 새롭게 살리고 살리는 사랑의 지혜는 저절로 그러한 자연이지 억지로 그렇게 되는 인

위가 아니다. 도법자연(道法自然)이다. 왕도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 정치를 말한다. 어린 아이가 나오면 어머니는 저절로 젖이 나와서 먹이는 것이지 새로 아이를 위해 먹이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도법자연(道法自然)이라는 말이다. 그런 어머니 같은 왕도정치의 자비(慈悲)는 온 우주를 덮을 만큼 큰 것이다. 그래서 크다고 한다. 그 큰 자비의 혜택은 아무리 미미한 존재라도 다 미치게 된다. 우주의 하찮은 미물이라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혜택을 받아 충만하게 되면 그 충만함이 다시 돌아와 순환하게 된다. 그리하여 온 우주에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 멀리 가는 것은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말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드라마의 ‘중중무진법계연기(重重無盡法界緣起)’처럼 돌고 돌아 온전하고 충만한 사랑의 세계가 왕도정치의 이상이다. 나라에서 그런 왕도정치가 실현되는 것만큼 행복하고 기쁜 것이 없다.(다음 호에 계속) 

도덕경에 대하여

동양 경전들 가운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번역되어 알려진 책들의 하나가 <노자>라는 책이라 한다. <노자> 또는 <도덕경>이라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도 수십 종의 번역본이 나와 있는데 번역하는 사람마다 내용이 대부분 판이하게 달라서 일반 독자로서 어느 책을 골라야 할지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논어>나 <맹자>등 유교 경전들은 풀이나 해석이 거의 대동소이한 데 비하면 <도덕경>이 지니는 이런 해석의 다양성은 별난 특징 중의 하나라 하겠다. <도덕경> 원문이 그만큼 함축적이고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상징적이고 철학적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신비하고 현묘한 책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래서 노자의 사상을 현학(玄學)이라 하기도 한다.

책의 내용만큼이나 <노자>라는 책을 쓴 주인공에 대해서도 신비에 쌓여있어 그가 어느 때 살았던 누구인지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노자라는 저자는 역사적 실존인물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오랜 세월을 걸쳐 편집된 것이 <노자> 즉 <도덕경>이라는 책으로 완성되었다고 주장을 펴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지난 1973년 겨울에 마왕퇴(馬王堆)의 한(漢)나라 묘에서 <노자>의 백서본(帛書本), 즉 비단에 써놓은 글이 출토되었는데 그 내용은 그동안 통용되던 통용본과 다른 점이 거의 없지만 순서에서 크게 차이가 있었다. 즉 도덕경(道德經)을 도경(道經)과 덕경(德經)으로 나눌 때, 백서본에서는 통용본과 달리 덕경이 앞에 나오고 도경이 뒤편에 나온다는 점이다. 통용본이란 우리에게 익숙한 노자 81장으로 된 것으로서, 한나라 시절의 하상공이 처음 펴냈다는 하상공본과 그 뒤를 이어 위진남북조 시대의 천재소년 왕 이 주석을 달았다는 왕 본이 토대가 되어 판본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 그런데 하상공본이나 왕 본은 그 원본이 사라졌기에 통용본의 가장 오랜 판본은 겨우 명나라 시대인 12세기에 출간된 것이다. 이에 비하여 백서본은 기원전 200여년 경에 필사된 것이니 통용본 판본보다 무려 천 수백 년을 앞선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또 백서본보다도 백여 년 앞서서 죽간(竹簡)에 씌어진 노자가 1993년 8월에 중국 호북성 광점촌(廓店村)의 초(楚)나라 무덤에서 발굴되었다. 이것은 형식과

내용과 분량에서 통용본이나 백서본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먼저 분량 면에서 5천자 규모의 통용본에 비해 겨우 2천여 글자로 되어 있으며 내용면에서도 통용본이 반유가적 주장으로 볼 수 있는 문구들이 객점 초묘의 죽간본(이하 竹簡本이라 함)에서는 전혀 다른 글자로 되어 있었다. 객점의 초간본이 출토된 후 중국학자들의 정리를 거쳐 1998년에야 일반에 공개되었는데 그 후 많은 사람들이 이 자료를 토대로 연구 중에 있다. 이를 계기로 향후 많은 연구 결실이 나와서 노자 및 그 사상을 새롭게 조명하게 될 것이라 본다.

우선 마왕퇴(馬王堆) 백서본(帛書本)과 객점(廓店) 초묘(楚墓)의 죽간본(竹簡本)의 발굴로 확실하게 된 것은 노자라는 책이 수십 년 내지 수백 년에 걸쳐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 편집되고 추가 되고 수정되어 왔다는 점이다. 그리고 〈노자〉라는 책을 나오게 만든 최초의 인물 또는 저자와 후대의 편집자들이 모두 노자라는 인물로 간주되어 혼동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즉 노자로 알려진 최초의 인물은 춘추시대 주나라 서울인 낙양에서 도서관 겸 박물관인 수장실(守藏室) 사관, 요새로 말하면 도서관장 겸 박물관장으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공자가 그를 낙양으로 찾아가 예(禮)를 물었다고 하는 공자의 스승이라 한다. 당시의 최고 지성인이었을 그의 말을 제자들이 기록했던 것이 초기의 〈노자〉가 되었을 것인데 그 책이 또는 책들이 추가 보충되어 오천여자의 〈노자〉로 되었을 것이다. 오천여자 〈노자〉로 편집한 노자 후대의 사람이 또 노자라는 인물로 알려진 것 같다. 그러니까 망명길에 함곡관에서 관문지기 윤희(尹喜)에게 오천 자를 남기고 떠났다는 인물인 태사담이 노자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노자사상의 후계자인 셈이라 할 것이다. 또 그보다 앞서 노자의 후계자로 보이는 노래자라는 사람도 노자로 알려져 있기에 적어도 세 사람의 서로 다른 시대의 인물들이 모두 〈노자〉라는 책이 나오는데 기여하거나 편집에 참여하여 후대에 한 사람의 노자로 알려짐으로써 여러 혼동을 일으킨 듯 하다.

하여튼 필자는 객점 묘의 초간본이 지금까지 세상에 나온 가장 오랜 노자 관련 문서요, 그만큼 최초 저자인 노자의 말과 사상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이 초간본을 중심으로 노자사상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노자의 본명은 우리나라 이조시대의 이율곡과 꼭 같은 이름인 이이(李耳)였다고 한다. 그런데 왜 그를 노자(老子)로 불렀을까? 노자(老子)의 자(子)는 공자, 맹자, 주

자 등과 같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이다. 공자라 하면 공씨 성을 가진 선생님이요, 맹자라 함은 맹씨 성을 가진 선생님이다. 그러면 노자는 노씨성이 아닌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인데 왜 노 선생님일까? 이에 대해 김홍호 선생은 풀이하기를 노(老)라는 글자도 선생이라는 뜻으로서 결국 노자란 선생님의 선생님이라는 뜻이라 한다. 즉 유가의 대표적 선생님이신 공자의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공자가 멀리 낙양까지 찾아가 노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예를 배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자라는 호칭은 공자의 제자들인 유가의 학자들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그만큼 공자의 제자들도 노자를 스승으로 존경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유가의 성인으로 대표되는 스승 공자가 멀리 노자를 찾아가서 예(禮)를 배웠다는 말은 당시 노자가 주나라 문물과 문화적 전통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최고의 지성인이요 인격자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자는 노자에게 예(禮)를 묻고 일생 주나라의 예를 부흥시키고자 노심 사 애를 쓴 인물이었다.

공자가 노자를 찾아가 ‘예(禮)’에 관해 물었을 때 노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한다.

“예를 일으킨 사람들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나고 오직 그들이 남긴 말만 남아있을 뿐이요. 그런데 이제 시대도 달라지고 사람도 달라졌으니 그대는 옛 것에 매달리지 말고 새 시대의 현실을 직시하시오. 그대도 알다시피 이 시대는 어지러운 시대요. 난 세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인격의 힘이라오. 인격의 힘인 덕(德)을 길러서 외모로는 마치 없는 듯, 어리석은 사람처럼 겸손해야 한다오. 이것이 예라는 것이오.”

공자는 노자에게 깊이 감사하며 물러났다. 떠날 때 노자는 이별을 아쉬워하며 젊은 공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내 들으니 부귀한 사람은 남을 보낼 때 재물을 선사하고 어진 사람은 남을 보낼 때 몇 마디 말을 선사한다고 하오. 내게 재물이 없으니 어진 사람을 흉내 내어 몇 마디 말로써 그대와 작별하고자 하오. 우선 훌륭한 장사꾼은 좋은 보물을 깊이 감추어 놓고 밖에는 내놓지 않는다 하오. 훌륭한 군자는 겉으로 보기에 볼품없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훌륭한 인격과 학문을 품어야 하오. 겉으로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라오. 그대 마땅히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또한 헛된 망상을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오. 그렇게만 되면 도(道)는 저절로 자기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법

이러오. 그리고 가끔 총명하고 사리를 잘 살피는 사람이 위험한 죽음에 부딪히게 되는 것은 남을 비방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러오. 말을 잘하고 널리 통달한 사람이 가끔 자기 몸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남의 악을 들추어내기 때문이러오. 끝으로 사람은 자식 된 도리로서 부모를 섬기되 자신을 돌보지 말고 진심으로 섬겨야 할 것이오. 남의 신하가 되어 임금을 모시는 자도 또한 제 멋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오. 내 이 말로 그대를 보내는 표시로 삼으니 부디 명심하고 잘 가시오.”

공자는 노자의 말을 가슴깊이 새기고 낙양을 떠나 고향 노나라로 돌아왔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노자를 만난 소감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다.

“달리는 짐승은 뗏을 놓아 잡을 수 있고 헤엄치는 물고기는 그물로 잡을 수 있으며 공중을 나는 새는 활로 잡을 수가 있다. 그러나 용은 마음대로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오르며 그 변화가 심하니 나로서는 알 수가 없구나. 내가 노자를 만나보니 그는 마치 용과 같은 사람이었다.”

노자나 공자나 모두 어지러운 시대를 바로잡아 이상세계의 실현을 꿈꾸며 노력했던 인물이다. 이상세계는 오직 성인이 나와서 천하를 다스릴 때만이 가능한 것인데 그런 성인은 어떤 분이고 또한 그런 성인이 되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자나 노자는 전혀 다르지 않게 보여진다. 비록 표현하는 방법이나 말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들의 뜻은 하나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안목으로 관점 초간본을 중심으로 노자 사상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관점 초간본은 갑조, 을조, 병조라는 세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갑조는 모두 39개의 대 글로 되어 있다. 39개의 대 에는 통용본 노자로 말해 모두 19개 장(19, 66, 46, 30, 64, 37, 63, 2, 32, 25, 5, 16, 64, 56, 57, 55, 44, 40, 9)에 해당되는 글이 실려 있는데 그들은 또 다섯 묶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묶음이 19장, 66장, 46장, 30장, 64장, 37장, 63장, 2장, 32장인데 이들은 죽간들이 함께 뒤섞여있어서 각 장들의 순서가 꼭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죽간을 묶었던 끈들이 다 삭아서 없어졌을 터인데 그 대 의 본래 순서는 누구도 알 수 없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필자는 갑조의 첫 묶음을 나름대로 논리적인 배치로 새로 재구성하여 노자사상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사실 〈노자〉라는 글의 성격상 논리적 배치가 그다지 의미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 공자의 〈논어〉에서 보듯이 그저 아무런 순서

없이 공자의 말을 나열한 것뿐이지만 공자의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있는 말이 되어 논어를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노자의 말도 제자가 별다른 순서 없이 적어놓은 것일 수 있다. 도니 덕이니 진리니 무엇이라 하건 모두 논리나 언어나 말을 초월한 것이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말을 적어놓은 행간에서 그 뜻을 얻으면 되는 것인데, 부질없이 논리적 구성을 한답시고 꺾어 맞추는 일이 도리어 형클어뜨리는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꺾어도 다 통하는 것이라 또 그런 유희 속에서 일관지의 뜻과 묘미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다음호에 계속)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심중식** | 한국산업기술대 겸임교수. 김홍호전집 편집인으로서 지난 10여년동안 '주역강해', '화엄경강해', '법화경강해', '원각경강해', '양명학공부' 등을 엮어냈으며 또한 [나알알나\(www.naalla.com\)](http://www.naalla.com)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